

벤츠 마이바흐 첫 전기차 'EQS SUV' 국내 출시

럭셔리 전기차 끝판왕...1회 충전 600km 주행, 가격 2억2500만원 8월 중 고객 인도...45대 한정판 '나이트 시리즈'도 함께 선보여

벤츠의 최상위 브랜드 마이바흐가 첫 전기차를 출시한다. 벤츠 전기차에 적용된 패밀리로 마이바흐 고유의 디자인 요소를 더했고, 1회 충전 시 최대 600km를 달릴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마이바흐는 이번 차량 출시로 전기차 시장에서 최상위 차량의 기준을 재정의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25일 서울 성수동에 열린 행사에서 마이바흐 브랜드 최초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디 올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EQS SUV'를 선보였다.

마이바흐 EQS SUV는 마이바흐 고유의 독보적 고급스러움에 최신 전기차 기술력이 결합된 마이바흐의 첫 번째 전동화 모델이다. 마이바흐 EQS는 지난해 상하이 모터쇼에서 대중에게 첫 선을 보였다.

마이바흐 EQS는 벤츠 전기차의 패밀리 룩에 마이바흐 고유의 엠블럼과 레터링 등을 담았다. 8가지의 외관 기본 색상 외에도 마이바흐 모델에서만 제공되는 5가지 투톤 페인트 외장 색상도 유료

옵션으로 제공한다.

실내에도 장인 정신으로 완성한 전용 나파 가죽 시트와 마이바흐 엠블럼 등을 적용해 감각적이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했다고 벤츠는 설명했다. 실내 앞좌석은 3개의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합쳐진 혁신적인 MBUX 하이퍼스크린을 탑재했다.

특히 뒷좌석에는 최대 45도 수준의 리클라이닝 기능, 통풍·마사지·온열기능이 들어간 시트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탑재해, 마이바흐 모델에서만 제공되는 최고 수준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 또 옵션 선택시 냉방고와 삼폐인 잔이 포함된 뒷좌석 센터콘솔을 적용할 수 있다.

또 뒷좌석에 두 개의 11.6인치 풀 HD 터치스크린과 7인치 MBUX 태블릿을 기본 적용해, 뒷자리 승객들도 차량의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직접 조작할 수 있다. 이밖에 대형 해파 필터를 포함한 공기 청정 패키지, 향기를 뿜는 에어 밸런스 패키지 등 여러 편의사양도 추가됐다.



메르세데스-마이바흐 EQS 680 SUV 나이트 시리즈.

이중 접합 유리 외관과 차체 하부 패널의 특수 폼 등으로 소음과 진동 유입을 줄였고, 주행 상황에 따라 전륜 모터를 분리해 후륜 구동으로만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해 주행 효율과 소음 유입까지 줄

였다.

내·외관의 고급스러움 뿐만 아니라 기능성도 높고 자랑한다. 제로백(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4초이며, 1회 충전 시 최대

612km 주행이 가능하다.

마이바흐 EQS 680 SUV는 8월 중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2억2500만원이다. (부가세 포함)

벤츠는 또 마이바흐 모델 라인업에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를 적용한 45대 한정판 모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나이트 시리즈'도 출시하기로 했다.

마이바흐 나이트 시리즈는 어두운 계열의 투톤 페인트, 마이바흐 패턴의 휠, 헤링본 스타일의 실내 장식 등의 디자인 요소를 더한 한정판 모델이다.

마이바흐 나이트 시리즈를 대표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의 출시 기념 행사에서 "마이바흐 EQS SUV는 우리 브랜드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모델"이라며, "전동화 시대에도 궁극의 럭셔리를 지향하는 브랜드의 목표가 고스란히 담긴 모델인만큼, 마이바흐만의 압도적인 럭셔리함과 최상위 전기 주행 경험을 동시에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츠는 "좋은 것은 또한 반드시 아름다워야 한다"는 창립자 칼 마이바흐의 철학 아래 마이바흐 EQS는 제작했으며, 마이바흐 브랜드의 정체성을 전기차 시대에도 지키겠다는 목표를 차량 내·외관에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중남미 시장 본격 공략...브라질서 '딜러 컨벤션'

주요 제품 영업·마케팅 전략 공유

금호타이어가 중남미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금호타이어는 29일 "지난 20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금호 딜러 컨벤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중남미 딜러사를 대상으로 3일간 '2024 금호 FIA TCR 월드 투어' 4라운드 관망과 신제품 '엑스타 스포츠 S PS72', 전기차 전용 'Foam 타이어' 등 주요 제품의 영업,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소개했다.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시장은 최근 주요 전기차 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중남미 매출도 최근 3년 간 32.5%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중남미를 '전략국가'로 지정해 글로벌 판매망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딜러 컨벤션 행사로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중남미 딜러사와 공유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은 "금호타이어는 최근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투자와 기술력 향상을 통해 2024년에도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며 "또 금호타이어는 EV



'금호 딜러 컨벤션' 행사에 참여한 중남미 주요 딜러들과 금호타이어 관계자들이 브라질 상파울로 인테르라고스 서킷에서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타이어 혁신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 기업이 되고자 하며,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 및 납기·물류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글로벌 딜러사에 적기 제품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세계 최정속 투어링 대회인 '금호 FIA TCR 월드 투어' 타이틀 스폰서를 체결해 올해 각 대륙에서 열리는 TCR 시리즈에 타이어를 제공, 레이싱 타이어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 그룹 40년 '양궁 사랑', 여자 단체 올림픽 10연패 '후원'

슈팅 로봇 개발 등 물심양면 지원

올림픽 여자 양궁단체전 10연패를 달성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양궁 사랑'이 주목받고 있다.

29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1985년부터 대한양궁협회 회장사를 맡아왔다. 국내 단일 스포츠 종목 후원으로는 최장기간이다. 현대차그룹은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돕기 위해 개인 훈련용 슈팅 로봇을 개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는 평가다.

특히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도쿄 올림픽이 끝난 직후부터 대한양궁협회와 함께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파리 대회 양궁경기장인 앙발리드 경기장과 똑같은 시설을 전진선수촌에 설립했다.

또 파리 경기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개인 훈련용 슈팅 로봇과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또 양궁 경기가 열리는 앙발리드 경기장에서 10km 떨어진 곳의 스포츠클럽을 통해 빌려 양궁 국가대표팀 전용 연습장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그룹은 경기장 근거리의 의무 치료실, 라운지 등 별도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한식 등을 제공해 선수들이 현지 적응을 도왔다.

무엇보다 현대차그룹은 양궁 훈련 장비와 훈련 기법을 개발해 지원했다.

개인 훈련용 슈팅 로봇에 더해 슈팅 자세를 분석



정의선(왼쪽) 현대차그룹 회장이 2024 파리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경기 시상자로 나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선수단에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하는 야외 훈련용 다중가메라, 활 장비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활 검증 장비, 직사광선을 반사하고 복사에너지 방출을 극대화하는 신 소재를 적용한 복사냉각 모자 등이 대표적이다. 3D 프린터로 선수 손에 최적화해 제작한 선수 맞춤형 그룹을 제공했다. TV 중계화면에서 이목을 끌었던 심박수 측정 장치도, 비접촉 방식으로 생체

정보를 측정해 선수들 긴장도를 파악, 성적에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게 현대차 설명이다. 대한양궁협회장과 아시아양궁연맹회장을 맡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여자 양궁 단체전을 현장에서 관람한 데 이어 직접 시상자로 나서 선수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토요타, 패럴림픽 선수단에 격려금 1억원

한국토요타자동차는 29일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에 1억원의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17개 종목 177명의 선수단에 특별 격려금을 지급

하고 대회 종료 후 대한장애인체육회 출입기자단이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최우수선수에게는 토요타의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SUV인 'RAV4 하이브리드'를 부상으로 제공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2024 파리 패럴림픽에 대

한 관심도를 높이고, 장애인 스포츠 선수의 도전을 응원, 선수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선수단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 후원사이기도한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 4월 16일에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후원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편의점서 화재사고 예방 '차량용 소화기' 판매

GS리테일은 29일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더프레쉬에서 자동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사진>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6일까지 모바일 앱 '우리동네GS'에서 사전 예약으로 GS25와 GS4더프레쉬에서 각각 2000개를 판매하고 추석을 앞둔 9월 초부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상품을 선보인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 외에도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GS25가 판매하는 제품은 자동차 검용 인증을 받은 에스뷰(Sview) 119 브랜드 상품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올해 12월부터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상품을 준비했다"며 "단순 소매점을 넘어 생활 안전지킴이 역할까지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렉서스코리아 '디 올 뉴 LM 500h' 출시

렉서스코리아는 29일 플래그십 MPV인 '디 올 뉴 LM 500h' <사진>를 공식 출시했다.

디 올 뉴 LM 500h는 편안한 정숙함과 쾌적한 승차감을 바탕으로, 탑승객을 고려한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사양을 탑재한 차량이라는 게 렉서스코리아의 설명이다.

디 올 뉴 LM 500h는 2.4ℓ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얹었다. 여기에 전기 모터를 결합해 총 368마력을 발휘한다. 습식 발진 클러치에 6단 자동변속기, 'DIRECT4 AWD' 시스템으로 전후륜 토크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디 올 뉴 LM 500h는 4인승 로열 그레이드와 6인승 이그제큐티브 그레이드 2가지로 출시되며 권장소비자가 적은 ▲4인승 로열 그레이드 1억9600만 원 ▲6인

승 이그제큐티브 그레이드 1억4800만 원이다. (부가세 포함)

강대한 렉서스코리아 부사장은 "디 올 뉴 LM 500h"는 렉서스가 추구하는 타협하지 않는 디테일, 차원이 다른 럭셔리라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렉서스의 플래그십 MPV 차량"이라며 "고급스러운 실내의 디자인부터 넓은 탑승 공간, 다양한 편의사양들을 통해 플래그십 MPV로 소퍼드립 시장에 진정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렉서스 디 올 뉴 LM 500h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렉서스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전국 렉서스 공식 딜러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더 뉴 K8' 티저 이미지·영상 공개

기아는 29일 '더 뉴 K8(The new K8)' 티저 이미지<사진>와 영상을 공개했다. 더 뉴 K8은 3년 만에 선보이는 K8의 페이스 리프트(상품성 개선) 모델이다. 지난 2021년 출시된 K8은 올 6월까지 국내에서 13만대 이상이 팔렸다.

기아는 이날 티저 이미지를 통해 새로워진 K8의 전·측·후면 디자인을 부분적으로 공개했다.

기아 공식 유튜브 채널 'KATV'에 함께 공개된 티저 영상은 밤하늘의 별 형상이 세로형 헤드램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더 뉴 K8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담았다.

기아는 8월 중 상품성을 높인 더 뉴 K8의 디자



인과 사양, 가격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출시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